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5월 물가 예상외로 둔화... 연율 3.3% 상승
- Bloomberg: 미 인플레 둔화 지표는 연준 관리에 좋은 소식
- CNN Business: 오늘 연준 회의로부터 기대하는 사항은?

[미국 금융]

- WSJ: 트레이더들, 9월에 금리 인하 확신

[부동산]

- NYT: 노후화되고 비어있는 사무실 빌딩 헐값에 팔린다
- CNBC: 지난주 모기지율 떨어져 신청자 16% 반짝 상승

[오일]

- WSJ: IEA, “2020년대 말까지 세계 석유 공급 과잉”

[전기차]

- CNBC: 전기차 구매자에게 10억불 이상 세금 공제 지급
- WSJ: EU,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8% 관세 부과 예정

[중국 경제]

- WSJ: 중국 인플레, 소비 지출 부진 속에서 낮은 수준 유지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Reuters: 애플, MS 제치고 시가 총액 1위
- CNN Business: 미국인의 66%, CEO와 직원 간 임금 격차에 우려 표명
- CNN Business: 아마존 1만 5천명 계약직 운전자들 제소...초과근무 및 미지불 임금 보상 요구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Inflation Eased to 3.3% in May, Slightly Lower Than Expected 5월 물가 예상외로 둔화... 연율 3.3% 상승

- 5월 미 인플레가 둔화되었다. 물가 압력 완화로 올해 하반기에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5월 상품과 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3.3% 증가했다고 연방노동부는 오늘 수요일 밝혔다. 4월 인플레는 연율로 3.4%였다.

- 5월 핵심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상승해 작년 7월 이래 상승폭이 낮았고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3.4% 상승해 지난 2021년 연간 상승폭으로는 가장 낮았다.

WSJ 기사

Bloomberg: US Inflation Broadly Cools in Encouraging Sign for Fed Officials

미 인플레이션 둔화 지표는 연준 관리에 좋은 소식

- 미국의 근원 물가지수가 두 달째 하락해 금리 인하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연준 관리들에 놀라움과 기쁨을 선사했다.
-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이른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4월과 비교해 0.2% 상승했고 연율로는 3.4% 상승해 최근 수년간 낮은 속도로 둔화하고 있다.
- 지난 4월의 소비자물가 지수 하락과 이번 물가 하락 지수로 인해 물가가 다시 하락 추세라는 조기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 그러나 연준 관리들은 금리 상승 전에 물가가 수개월 동안 하락한다는 지표들을 보고 싶어 하고 있다. 즉, 최근 일자리 상승은 금리 인하를 철회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Bloomberg 기사

CNN Business: What to expect from the Fed meeting

오늘 연준 회의로부터 기대하는 사항은?

- 연준이 오늘 수요일 올해 들어 7번째 연속해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이며 당초 예상과는 달리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 투자자들과 관련자들은 특히 연준 관리들의 경제(금리) 전망, 이른바 점도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지난 3월에 예상했던 올해 3차례 금리 인하 전망 대신에 올해 한두 차례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관리들의 예상은 첫 금리 인하를 언제 시행할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파월 의장은 오늘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 전에 물가 목표치 2%로 향하고 있다는 충분한 지표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CNN Business 기사

[미국 금융]**WSJ: Traders Firmly Expect a Rate Cut in September**
트레이더들, 9월에 금리 인하 확신

- 오늘 수요일 미 물가 둔화라는 긍정적인 소식 이후에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더 베팅하고 있다.
- 옵션 등 관련 데이터인 CME Group data에 따르면 연준이 9월 회의까지 최소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가능성은 71%로 나타났으며, 금년말까지 최소 한 차례는 어제 52% 가능성에서 오늘 수요일 69%로 상승했다.
- 그리고 연준의 금년말까지 최소 2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은 69%로 어제 화요일 52%에서 상승했다.
- 물론 투자자들은 연준이 올해 3차례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예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5%에서 26%로 약간 상승했다.

WSJ 기사

[물류]**NYT: Buyers Snap Up Aging and Empty Office Buildings for Deep Discounts**
노후화되고 비어있는 사무실 빌딩 헐값에 팔린다

- 노후화된 빌딩의 추락하는 자산 가치, 팬데믹 이후 임대 수요 약세 그리고 새로운 용자나 채용자를 위한 높은 금리. 이로 인해 2조4천억 달러 규모의 사무실 빌딩 부문이 흔들리고 있다.
- 최근에 맨해튼을 비롯한 미 전역의 여러 사무실 빌딩이 구매자들에게 최대 70%까지 할인되어 매각되고 있다. 이들 구매자들은 추후 가격 상승으로 인한 큰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 한 예로 올해 4월에 Yellowstone Real Estate Investments는 맨해튼 컬럼버스 근처의 사무실 빌딩을 1억8천5백만불에 매입했는데 이 빌딩은 최대 투자사인 블랙스톤은 10년 전에 6억달러에 매입했었다.
- 이번 주에 2개 부동산 회사는 미드 맨해튼에 있는 부동산을 5천만불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매입했다. 이같은 현상은 부동산 용자의 당사자들인 은행과 투자자들의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NYT 기사

CNBC: A brief drop in mortgage rates caused a huge surge in demand, but it may be short-lived**지난주 모기지율 떨어져 신청자 16% 반짝 상승**

- 모기지은행협회에 따르면 지난주 주택 구입용 모기지율이 상당히 떨어져 신청자 수가 지지난 주에 비해 16% 상승했다.
- 그러나 모기지율은 지난 금요일 강한 일자리 보고서 발표 후에 다시 반등했다.
- 지난주에 30년 모기지가 7.07%에서 7.02%로 하락했다. 그 주 내내 모기지율은 더 떨어졌으나 지난주 금요일 양호한 일자리 발표 때문에 모기지는 12 베이시스 포인트 다시 뛰었다.

CNBC 기사

[에너지]**WSJ: The World Will Be Swimming in Excess Oil by End of This Decade, IEA Says****IEA, “2020년대 말까지 세계 석유 공급 과잉”**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중기 석유 시장 보고서를 통해 2020년대 말까지 세계 석유 시장에 큰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석유 공급 과잉과 저공해 에너지원이 늘어나 원유 수요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IEA는 석유 수요가 2029년에 정점을 찍고, 내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30년에는 청정 에너지 기술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하루 1억54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석유 생산 능력은 미국과 미주 지역의 생산자들에 의해 하루 약 1억 1,380만 배럴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IEA는 수요일 보고서에서 “2020년 코로나 봉쇄가 절정에 달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예비 용량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구는 “이러한 대규모 석유 생산 여유분은 저유가 환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오일 생산자들과 OPEC+에게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SJ 기사

[전기차]

CNBC: More than \$1 billion in EV tax credits issued upfront to buyers, Treasury and IRS say

전기차 구매자에게 10억불 이상 세금 공제 지급

-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수요일에 연방 정부가 전기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10억 달러 이상의 세금 공제액을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은 신차와 중고 전기차 구매자에게 각각 최대 7천 5백 달러와 4천 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세금 공제는 차량 구매 시점에 바로 받을 수 있다.
- 이전에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한 후 몇 달이나 1년 이상 지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전기차 세금 공제를 선불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CNBC 기사

WSJ: EU to Slap Tariffs of Up to 48% on EV Imports From China

EU,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8% 관세 부과 예정

- 유럽연합(EU)은 다음 달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 자동차에 최대 48%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기차 구매 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 EU 집행위원회는 작년부터 시작된 보조금 조사에 이어, 7월 4일경부터 BYD, Geely, MG 소유주인 SAIC Motor Corp를 포함한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식 통보했다.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중국 국내 가격 전쟁과 수년간의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유럽에 더욱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 EU는 조사 협조 정도에 따라 업체별로 부과되는 과징금이 다를 수 있으며,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업체는 SAIC Motor Corp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WSJ 기사

[중국 경제]

WSJ: China Inflation Stays Low Amid Tepid Consumer Spending

중국 인플레이, 소비 지출 부진 속에서 낮은 수준 유지

- 수요일 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4개월 연속 상승해 전년 동월 대비 0.3% 증가했다. 이는 WSJ 설문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한 0.3%와 일치하며, 4월의 상승률과 동일한 수준이다.

- 반면 공장도 가격(출고가)은 5월에도 계속 하락했지만, 4월보다 하락폭이 좁혀졌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 하락하여 20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 이러한 수치는 부동산 침체로 인해 중국 가계의 지출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Reuters: AI-powered Apple overtakes Microsoft as world's most valuable company

애플, MS 제치고 시가 총액 1위

- 애플이 오늘 다시 한번 자산 가치가 가장 큰 회사가 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친 것. 애플사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 경쟁을 주도하겠다는 상황에서 자산 최대 1위 기업이 되었다.
- 오늘 수요일 오전 애플은 주가가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식 시장 가치가 3조2천9백억을 돌파했다.
- 반면에 현재 1.2% 대의 주식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켓 자본이 3조2천4백억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는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애플 뒤로 밀렸다.

Reuters 기사

CNN Business: China Inflation Stays Low Amid Tepid Consumer Spending

중국 인플, 소비 지출 부진 속에서 낮은 수준 유지

- 수요일 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4개월 연속 상승해 전년 동월 대비 0.3% 증가했다. 이는 WSJ 설문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한 0.3%와 일치하며, 4월의 상승률과 동일한 수준이다.
- 반면 공장도 가격(출고가)은 5월에도 계속 하락했지만, 4월보다 하락폭이 좁혀졌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 하락하여 20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 이러한 수치는 부동산 침체로 인해 중국 가계의 지출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CNN Business 기사

CNN Business: More than 15,000 Amazon contract drivers file legal claims asking for compensation for overtime and unpaid wages 아마존 1만 5천명 계약직 운전자들 제소...초과근무 및 미지불 임금 보상 요구

- 1만5천명 이상의 아마존 계약직 운전기사들이 아마존을 상대로 중재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아마존이 자신들을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분류했다고 주장한다.
- 미국에서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가 대중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달 및 차량 서비스 앱을 통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최근에 이들은 자신이 단순한 계약자가 아니라 사실상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더 많은 혜택과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 아마존은 2015년에 출시된 Amazon Flex를 통해 독립 계약업체가 아마존 패키지를 배송할 수 있도록 했다. '플렉스 드라이버'는 아마존의 창고 허브에서 '아마존 프레스시' 식료품 배송 또는 당일 배송을 제공한다. 그러나 운전자는 독립 계약자로 분류되어 미지급 임금과 초과근무 수당, 휴대폰 사용 비용 등을 요구할 수 없다.

CNN Business 기사

"미 금리·물가 발표 앞두고 주가 사상최고...달러·채권값도 상승"

"애플 7% 급등하며 S&P500·나스닥 기록 경신...소비자물가·FOMC 발표 주목"

미국의 금리 결정과 소비자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또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달러화와 국채 가격도 상승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전날보다 각각 0.27%와 0.88%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애플 주가가 전날 발표한 인공지능(AI) 전략에 대한 기대감으로 7.3% 뛰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애플 주가는 200달러를 넘으며 역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